한국농수산대 장기현장실습 개선방안 연구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Long-Term Workplace Practice of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Focused on the Foreign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김수욱** · 서규선*** · 전은경**** · 최영창*****
Su Wook Kim · Gyu Sun Shu · Eun Kyung Chun · Yeong Chang Cho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agricultural practice of schools in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Germany, France, Netherland, Japan, to attain its implications and to get implications for improving KNCF's workplace practice program.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extensive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o agricultural practice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es of foreign countries. Some implications were summarized as followings: (1) the preparing program should be built in long-term workplace practice, (2) the manual for students and workplace professors should be made and supplied, (3) the web-site sharing the information of practice farms should be established, (4) KNCF should effort to manage the workplace practice, (5) the several standard model should be applied

* 본 연구는 2011년 한국농수산대학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사업의 일부를 포함함.
** 건국대학교 교수. e-mail: suwwok@konkuk.ac.kr
***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e-mail: sgs@kn.ac.kr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e-mail: ekchun@scau.ac.kr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e-mail: ab7851@hanmail.net

by kinds of crops and livestocks.

주요어(key words): 현장실습(Workplace Practice), 농업교육(Agricultural Educatio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농수산대학의 장기현장실습은 1년 동안 국내외 선진 농어장에서 경영기법과 생산 노하우를 직접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창업설계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얻어 실제 농어업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한국농수산대, 2011). 농업교육에 있어 현장실습과정은 학생들에게 전문영어농기술 및 경영능력의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어업 선진국에서도 중 · 장기 현장실습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 ·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에서 1년간의 학교가 아닌 영어농 현장에서 장기현장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재학생들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현장교수로부터 기술 및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현장에서의 노동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65%가 영농창업을 위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교육내용으로 장기현장실습을 꼽고 있음(김진모, 2009)을 보아도 미래 영어농창업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장기현장실습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현장실습에 대한 몇몇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현장교수와 실습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학습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노동의 경험으로 인식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김수욱 외, 2011). 이에 오랜 기간 장기현장실습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해외 선진농업국의 장기현장실습체계를 분석하여, 현장실습의 개선사항 발굴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실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농업선진국의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장기현장실습의 현황과 실습의 내용 및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농수산대의 장기현장실습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농수산대의 장기현장실습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한국농수산대의 장기현장실습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와 해외사례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농수산대의 학교 내부자료 및 기존 연구자료를 인용하였고, 해외 사례조사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4개국에 대해 기존의 국내 연구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나라들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하였다.

2. 한국농수산대의 교육과정과 장기현장실습 운영현황

한국농수산대학은 3년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운영방식은 〈표 1〉과 같이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샌드위치 시스템(Sandwich Education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이론과 실습이 완벽하게 조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농업 CEO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 방식이다.

〈표 1〉 한국농수산대학 교육과정 운영 방식

구분	과정명	주요 내용
1학년	기초과정	일반적인 교양과목, 작목별 전문기술과 농업 경영 마인드 배양에 필요한 과목 등 농업 CEO로 성장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2학년	현장실습과정	1년 동안 선진농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이다.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들을 현장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국내・외 선진 농장의 경영기법과 생산 노하우를 체득하여 현장 대처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3학년	창업준비과정	졸업 후 영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질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지도교수의 1:1 개별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는 물론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는 종합 중장기 영농 계획을 준비한다.

한국농수산대학의 교과편성 및 학점 이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농수산대학의 교과편성 및 학점 이수

구분	교육목표	교과 편성	학점 이수
학교교육 (1・3학년)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현장 중심의 열린 교육 ・작목 중심의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비한 교육 ・장기 농업수요에 필요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	・영농현장 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농업・농촌 현장에서 유용하고 실용성이 있는 교과목을 전공교과로 편성하되 이론과 실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 ・수요자의 요구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편성으로 학생 교과 선택권을 강화 ・교과목은 2~4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 등 실기과목은 1~2 학점 단위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 등 실기과목은 2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매 학기 2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 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20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은 80학점 이상

현장실습 교육 (2학년)	· 국 · 내외 선진농장 경영주의 지도하에 실제적인 영농실습으로 농장경영능력 배양	·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10개월 이상 실시(학기별로 5개월 이상) · 이수학점은 10개 과정 40학점(학기당 5과정 20학점) · 2학년 학생은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3학년으로 승급할 수 있음	2학년 장기 현장실습 40학점은 별도로 이수

2학년에 실시되는 장기현장실습은 총 10과목 4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5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교과목당 4학점 체계로 되어 있다. 〈표 3〉은 장기현장실습의 교과목 구성과 학점, 주요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장기현장실습 교육과정

구 분		실습분야 또는 실습교과	학점	구 분		실습분야 또는 실습교과	학점
1학기	1	경영계획실습 (축산경영실습)	4	2학기	6	지역사회개발실습	4
	2	재배환경관리실습 (가축사육환경실습)	4		7	출하 조절 실습 (축산부산물처리실습)	4
	3	생력재배실습 (가축사양관리실습)	4		8	GAP품질관리 실습 (축산물품질관리실습)	4
	4	병해충방제실습 (가축위생실습)	4		9	유통판매실습 (유통판매실습)	4
	5	재해대책실습 (오폐수정화실습)	4		10	농장경영진단실습	4
	소 계		20		소 계		20

한국농수산대의 장기현장실습은 2학년 과정 중에 10~12개월간 실습생이 현장교수의 농장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실습농장 선정은 지도교수, 현장교수, 학생들의 협의를 거쳐 실습 시작 전년도 하반기에 결정되며, 대개 12월에 실습교수와 실습생 간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통해

첫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교수는 학교로부터 소정의 지도료를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 관련한 조사하여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는 농장에 배정이 된다든가, 현장교수-실습생의 관계를 고용주-노동자의 관계로 인식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애초에 계획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욱 외, 2011).

3. 선진농업국의 현장실습 사례

3.1. 독일의 농업교육과 실습과정[1)]

3.1.1. 직업학교 교육과 실습과정

독일의 직업학교는 문자 그대로 다양한 직업을 배우는 곳이다. 직업학교의 특징은 산업분야별로 나뉘어 있기보다 여러 산업분야가 통합적으로 한 학교 안에 있는 종합학교라는 점이다. 즉 공업분야, 상업분야, 농업분야 등이 별도의 개별학교로 두지 않고 직업학교 안에 전공별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장시설 건설기술자, 정밀 기술자와 같은 공업계통, 사무 전문직원, 판매원과 같은 상업계통, 농기계 메카니커, 농업인과 같은 농업계통, 식품가공, 육가공과 같은 가공업계통 등이 하나의 직업학교 안에 있다.

직업학교 교육의 특징은 이원화제도(Duales System)라는 것이다. 이원화제도는 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즉 학교와 현장 두

1) 이 글은 독일의 전반적인 농업교육에 대해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고와 농업전문대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다루었음을 전제함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원화 시스템에 따라 학생들은 직업학교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학교에 나오며 나머지는 실습을 하게 된다. 또 다른 특징은 직업학교에 입학하면 반드시 경영체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화제도의 특성상 학생은 경영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직업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직업학교는 한국처럼 전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Teilzeitschule) 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직업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농고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은 농업분야(Landwirtschaft) 교육과정이다. 농업분야의 교육과정에는 가축, 농기계, 말, 양어, 포도, 정원, 산림, 사냥, 가정경영, 우유실험전문, 농업실험, 양조, 복합영농으로 14개의 전공이 있다.[2)]

이들의 교육과정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공마다 대개의 경우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독일의 직업학교(Berufsschule) 교육과 실습 구성

교육과정	교육 구성		특 징
중등교육 1단계 (3년)	· 직업학교 3년과정	선택 1 (1주일 기준)	· 1년차: 2일간 학교이론수업, 1일간 학교실습, 2~3일 경영체 현장실습 · 2~3년차: 1일 학교수업, 4~5일 경영체 현장실습
		선택 2 (1주일 기준)	· 1년차: 2일간 학교이론수업 · 2~3년차: 1일 학교수업, 4~5일 경영체 현장실습
일반교육 (9년)	· 초등학교 4년과정 + · 기간학교(Hauptschule) 5년 or 실업학교(Realschule) 6년		· 전체 9년 또는 10년 과정

하지만 3년을 어떤 형식으로 교육받는가 하는 것은 교육생들이 선택 1

2) 식품가공, 제과 제빵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농업분야 14개 전공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 선택 2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 1을 택하면, 교육생은 1년차에는 일주일에 2일은 학교에서 이론수업을 받고, 2일은 경영체에서 실습을 하며, 1일은 학교에서 실습을 한다.[3)]

그리고 2~3년차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학교에 가고, 나머지 4~5일은 경영체에서 실습을 한다. 반면에 선택 2를 택하면 1년차에는 2일간 학교에서 이론수업을 받고, 4~5일은 경영체에서 실습을 한다. 2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선택 1과 동일하다. 이렇게 3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거쳐 합격하게 되면 '농업인'(Landwirt)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며, 바로 농업현장으로 나가 취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독일 직업학교의 특징은 1년차에는 1주일에 3일 이상을 실습으로 보내고, 2년차와 3년차에서는 1주일에 4일 이상을 실습으로 보낸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의 직업교육이 이론보다는 실습과 현장위주의 교육이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위주의 학교실습과 산업현장에서 경영주에게 직접 배우는 실습 등 현장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하게 제공하고 있다.

직업학교 실습과정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실습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매년 다른 유형의 농장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실습생)의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양측은 계약서에 따라 실습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1년간이다. 1년간 한 경영체에 머물며 실습하게 될 경우에 4계절의 변화를 보며 깊은 부분까지 알게 된다. 또한 2년차 실습은 같은 농장이 아니라 농장을 의무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같은 종류의 농장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낙농장에

3) 경영체 실습을 2~3일, 4~5일이라고 한 것은 대개의 경우 경영체에서 격주에 한 번씩은 토요일에도 일(실습)을 하기 때문이다. 1년차에서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경영체 실습이 2일이 되고, 일을 하면 격주에 한 번씩 3일이 되는 것이다.

서 실습을 했을 경우 다음 해에는 낙농장이 아닌 돼지농장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습생이라고 해서 단순히 청소만 하고 단순한 일만 반복적으로 하며 어려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농장유형에 따라 실습생이 반드시 배우고 직접 해보아야 할 내용이 매뉴얼화되어 있어 실습생이 충분히 현장에서 전문지식에 기초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교육자도 실습생을 지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는 교육자는 피교육자에게 실습규정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수는 직종마다 다르나 복합영농의 경우 1년차에 평균 500유로, 2년차는 600유로, 3년차는 700유로를 지급한다. 이외에 보험까지 계산하면 교육자가 실습생을 고용하므로 1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평균 7,000유로를 상회한다.

3.1.2. 전문대 교육과 실습과정

전문대(Fachschule) 교육과정은 다음의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1년 동안 매일 학교에 출석하여 이론 위주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 1년 과정이 있으며, 둘째는 2년 동안 학교에 출석하여 이론을 공부하고, 1년 동안은 경영현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3년 과정이 있다.

〈표 5〉 독일의 전문학교(Fachschule) 교육과 실습 구성

교육과정	교육 구성	특 징
중등교육 2단계(3년)	○ 2년 과정 · 학교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1년간) · 현장실습(1년간)	· 1년 과정 졸업 후 시작됨 · 실습에 대한 요구사항: 1년간 현장 실습 · 이론(1년)과 실습(1년) 후 시험 · 시험합격자 자격: 공인농업경영자 (Staatl. gepr. Agrarbetriebswirt)
	○ 1년 과정 · 학교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1년간)	· 1년 교육 후 시험응시 가능 · 시험합격자 자격: 공인 경영자 (Staatl. gepr. Wirtschafter) · 실습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전문대(Fachschule) 교육과정의 특징은 이론이 강조된 교육과정이다. 전문대 교육과정에도 실습이 있고, 실습도 하지만 중점은 이론에 기초를 둔 현장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다. 첫째는 독일사회에서 전문대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거치면서 충분히 현장실습을 하였고, 또한 전문대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경영체에서 이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경영체를 직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에 출석하는 시간 외에는 학생들이 이미 현장에서 일(실습)을 충분한 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전문대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한 농업행위를 넘어 과학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을 하고 경영체와 사람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회계, 법률, 인간관계, 리더십 등을 배우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대 교육과정을 마친 경영자들은 농업현장에서 경영주나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시대의 흐름과 동향을 읽어내고 파악하며, 필요할 경우 자신의 품목을 확장하거나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분석, 경제성분석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혼자서 일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루고 여럿이 화합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러한 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정이 전문대 과정이다.

이러한 3년 과정을 거치고 시험에 통과하면 '공인 농업경영자'(Staatlich geprüfte Agrarbetriebswirt) 칭호를 얻게 되며, 아울러 실습생(견습생)을 받아 교육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된다.[4)]

3.2. 프랑스의 농업교육과 실습과정

3.2.1. 프랑스의 농업교육 체계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농업교육을 농림부가 관장해 왔으며, 정책과 연구, 인력육성을 동일한 부처가 담당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정부와 농업계가 농업분야를 공동관리(Cogestion)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농업교육 초기부터 프랑스 농림부가 고유한 권한을 갖고 모든 농업관련 교육기관을 관할하고 있으며, 농림부 연구교육국(DGER)을 중심으로 농업교육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4)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공인 농업경영자' 외에 '마이스터'(Meister)가 있다.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서 대개는 전문학교 1년 과정을 마치고, 마이스터 과정 2년을 다니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마이스터 과정의 구조적 특징은 교육비용을 자부담 해야 하며, 교육주체가 국가가 아닌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라는 점이다. 마이스터는 아울러 사회적 인정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전문학교 과정은 교육비용이 없으며, 교육주체가 국가이거나 주정부이다. 3년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마이스터'가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공인 농업경영자'이다.

〈표 6〉 프랑스 농업교육 학교 및 교육영역

학교급별	농업계 학교 수	교육영역	취득학위
농업고등학교	833	동물생산 농업행정 및 농촌서비스 공간정비 및 환경보호 농식품가공 동식물 위생 및 식품위생 농식품 유통 및 애그리비지니스 농자재 및 농기구	CAPA BEPA
전문대학	대부분의 농업 고등학교에서 수행	농업계 고등학교와 유사	BTSA
대학	19	수의 경관 조경 농업토목 수자원 관리 및 환경 농업계 고교 교사 양성	licence

프랑스에는 현재 833개에 달하는 농업관련 교육기관(고등학교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계 대학기관 수는 19개 소에 달한다. 이들 농업계 교육기관에서 2010년 현재 약 30만 명에 달하는 학생 및 성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학교(전문대)는 대부분 농업고등학교에 함께 설치돼 있다.

프랑스 전 국토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는 952개의 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레벨1에서 레벨6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위가 수여되고 있다.

3.2.2. 농업교육 실습과정의 특징

프랑스에서 농업교육과정별 각종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스타쥐(stage)라고 하는 현장실습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장실습은 서비스(농업행정 등), 농업생산, 지역개발, 가공 등 농업교육 영역이 4대 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현장실습은 농업관련기관에

서부터 농기업,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현장실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농업기술교육 및 실습을 실무현장에서 보완하는 한편, 졸업 후 취업할 농업관련 기관이나 농기업, 농장에서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관계들을 익히고 내부 의사결정구조와 기능들을 이해함으로써 본격적인 직업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연수기간은 농업교육 학위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0~12주의 실습기간을 거치며, 전문대학에서는 12~16주의 현장실습과정을 갖는다. 특히 전문대학 과정에서의 실습은 첫해에는 농업관련 기관 및 기업, 농장에서 이뤄지며, 2년차의 연수는 연수심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현장실습은 연수생이 연수장소를 찾는 경우와 반대로 연수기관이 연수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연수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기업, 농장 등 연수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학생이 속한 농업교육기관의 책임자 또는 교내의 연수위원회(인턴십)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필요할 경우 학교와 연수기관 또는 농장 간에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기업이나 농장의 연수책임자는 학생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기업이나 농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관점에서 연수생들을 지도해야 하며, 단순한 노무관리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연수생을 관리해야 한다. 연수생들을 저가의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연수생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연수기관과 연수생이 속한 교육기관 사이에는 협약서가 체결되며, 협약서 내용에는 연수기간, 연수목표, 질병 또는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관련사항이 명기된다. 보험관련 비용은 연수생이 속한 교육기관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연수기관은 연수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하며, 연수생들은 어떠한 형태의 보수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3. 네덜란드의 농업교육과 실습과정[5)]

3.3.1. 농업관련 교육과 실습과정

네덜란드의 농업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전체 교육체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네덜란드에서는 만 4세부터 8년 동안 기초교육인 초등교육을 받고, 9학년부터 중등교육에 진입하게 된다. 중등교육은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향후 학문을 하기 위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6년 과정의 예비대학교육(VWO)에, 직업전선에 뛰어들 학생들은 4년 과정의 예비직업교육(VMBO)에 진학한다. 하지만 진로 결정이 불확실한 학생들은 5년 과정의 일반중등교육(HAVO)에 진학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학교는 예비직업교육으로 전체의 약 60%가 여기에 진학한다.

3.3.1.1. 예비직업교육(VMBO)

네덜란드에서 농업분야 교육을 받고 농업인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4년 과정의 예비직업교육(VMBO: Voorbereidend Middelbaar Beroepsonderwijs)에 진학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예비직업교육 입학은 8년 동안의 초등교육(Elementary School)을 마치고 입학하게 된다. 예비직업교육 단계에서 농업교육은 '예비농업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비직업교육은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뉘는데, 전반기에는 주로 언어, 지리, 생물, 화학, IT 등을 가르치고, 후반기에는 농장이나 경영체 방문을 포함한 이론과 실기가 주를 이룬다.

---

5) 이 글은 네덜란드의 전반적인 농업교육에 대해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고와 농업전문대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별하여 다루었음을 전제한다.

3.3.1.2. 직업훈련(MBO)

직업훈련과정(MBO)은 일반적으로 예비직업교육(VMBO)을 마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된다. 이 과정은 보통 3~4년이며, 농업교육은 '중등농업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업훈련과정 이수형태는 실습교육중심과 이론교육중심이 있다. 실습교육중심은 일주일에 실습교육 4일, 이론교육 1일을 하며, 이론교육중심은 이와 반대로 이론교육 4일, 실습교육 1일을 한다.

〈표 7〉 네덜란드의 농업교육 관련 교육단계와 실습 구성

교육과정	교육 구성		특 징
고등전문교육	· 고등농업전문교육		· 최소 4년 · 이론과 현장실습
직업훈련 (MBO)	· 중등농업교육 3~4년	실습교육중심	· 중등농업교육 · 일주일: 실습 4일, 이론 1일
		이론교육중심	· 중등농업교육 · 일주일: 실습 1일, 이론 4일
중등교육: 예비직업교육 (VMBO)	· 예비농업교육 4년		· 1년차와 2년차는 언어, 과학 등 · 3~4년차에는 농업, 실습 위주
초등교육	· 초등학교 8년		· 기초교육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먼저 실습할 농장을 찾아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농장을 찾아서 이력서, 지원동기 등을 작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때 지원자는 실습생을 받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인증된 농장에만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독일의 실습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이 실력 있는 농장주 밑에서 제대로 실기와 이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생들이 단순한 노동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부는 실습하는 학생

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장주를 실습농장으로 지정하며, 능력이 없으면 실습농장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실습생을 고용하기 위해 농장주(교육자)는 실습지원자가 본인의 농장에 적합하며, 또한 인격적인 면과 전문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검증방법은 인터뷰를 하고, 필요 시 수일간 수습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습생(피교육자)으로 최종 선발되면 6개월 정도 실습을 하게 된다.

실습기간에 학생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장주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필요시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농장주가 최종적으로 보고서에 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사인하게 되면 실습을 마치게 되며, 실습생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실습을 충족하게 된다.

3.3.1.3. 고등전문교육(HBO)

고등전문교육은 최소 4년간이며, 이 단계에서 농업교육은 '고등농업전문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주요 교과에 대해 이론을 배우고, 또한 농장이나 농업관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도 한다. 이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직업훈련(MBO)에서 '중등농업교육'을 마쳐야 한다.

중등일반교육(HAVO)을 졸업하거나 또는 예비대학교육(VWO)에서 필수교과를 이수한 자도 고등전문교육에 입학할 수 있으나,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다. 고등농업전문교육을 마치게 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3.3.1.4. PTC+(Practical Training Centres Plus)

PTC+는 네덜란드 농업교육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농업교육, 중등농업교육, 고등농업전문교육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교육

과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학교 교육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PTC+는 원래 2차 대전 후 마샬플랜으로 경제개발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자금으로 실습교육훈련기관을 세운 것이 시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개의 센터가 있으며, 원예, 농기계, 가금류, 육우, 유우, 임업, 자연환경, 제분, 동물 수의, 국제교역, 승마, 식품, 버섯 등의 분야에서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PTC+의 가장 큰 특징은 '실습교육'과 '맞춤교육'으로 과정은 대부분 실습(관찰과 참여)과 리포트 작성으로 진행되며 교육생의 수준과 형편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매년 약 35,000명의 농업중고등학생, 전문대생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주로 1일~1주의 짧은 기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상의 농고생, 전문대생 위주의 농업교육을 살펴본 결과, 네덜란드의 농업교육도 농업마이스터로 유명한 독일의 농업교육과 마찬가지로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장에서 실력을 갖춘 경영자에게 6개월, 1년씩 실습하게 하며 전문기술과 이론을 습득하게 하고, 또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실습의 토대를 단단히 해주고 있다.

3.4. 일본 농업자대학교의 장기현장실습교육

3.4.1. 일본의 농업교육 현황

일본에서의 전문대학과 대학에서의 농업교육은 대학 60개교, 전문대학 47개교 등 10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육 후 영농정착 비율이 매우 낮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농업후계인력양성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후계인력 양성은 일반 대학보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업자대학을 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후계농업인 육성은 중앙 및 전국 도도

부현의 47개 농업자 대학을 통해 교육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중앙의 국립 농업자대학은 한 학년에 40명 정도의 소수 인원을 교육한다. 농업자대학에서는 4개월간 선진 농업법인, 농업경영자로부터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농업기술이나 경영을 실천적으로 습득하고 있다.

도도부현의 농업대학교는 1970년대 중반부터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2년간 교육을 하게 되는데, 강의・실험・연습 : 실습의 비율을 50% : 50%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도도부현의 농업자 대학은 전문대학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에 대한 평생학습 차원의 실천적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3.4.2. 중앙 농업자대학의 교과과정과 현장실습

3.4.2.1. 농업자대학의 교과과정

중앙의 농업자대학은 1968년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농업시험연구소와 통합하여,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 연구기구(농연기구)로 조직, 변경되었다. 농업자대학의 교과과정은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응용능력 및 자기학습 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농업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농촌리더로서 필요한 지도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분임토론과 현장실습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자대학의 커리큘럼은 크게 4개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기 집합교육(7개월):** 오리엔테이션, 선진적농업경영자의 강의 등에 의한, 2년간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장래 농업경

영자로의 의욕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1기 집합교육 이후에는 전국의 선진농업법인・농업경영자의 지도 아래 4개월간 현장실습을 통해 농업기술과 경영을 실천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② **제2기 집합교육(5개월):** 현장실습으로 체험한 지식・기술의 이론화, 선진농업기술, 환경보전형 농업・유기농법,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③ **제3기 집합교육 및 연구팀 현장파견실습(9개월):** 선진적인 경영관리방법, 마케팅, 농촌지역 메니지먼트, 식품안전 등을습득하고, 선진적인 농업경영자・지역리더로서 필요한 실력을 양성함. 또한, 농업연구기관에 연구팀을 파견하여, 현장에서의 조사・실습, 각종 통계분석・정리, 문헌수집・관리, 실습결과정리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법을 습득하고, 과제해결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④ **제4기 집합교육(4개월):** 국제적으로 폭넓은 시야를 갖고, 지역리더로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고, 농업에 대한 인격적가치관을 양성함. 2년간 대학교에서 배운 학습성과와 현장실습을 통해 익힌 기술 및 지식을 학생자신의 생각을 명확화・구체화시켜 각자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표 8〉 일본 農業者大學校 교육프로그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제1기 집합교육				-선진경영체 현장실습			-제2기 집합교육				
1년차	▸강의 - 오리엔테이션 - 농업경영자에 의한 강의 ▸실습 - 농작업실습 ▸분임토론학습 - 선진경영연구토론 - 선진경영체파견실습준비				▸현장실습 - 선진경영농업인 및 농업법인에서 경영이념, 경영관리방법, 생산기술 등을 현장에서 습득함과 동시에 농촌생활을 체험			▸강의 - 선진경영체 등 파견실습에서 습득한 지식・농업기술을 이해 - 환경보전형농업・유기농업 - 소비자커뮤니케이션 ▸분임토론학습 - 선진경영연구토론 - 커뮤니케이션 방법 습득 - 선진경영체파견실습 정리 - 연구팀 파견실습 준비				

2년차	-제3기 집합교육・연구팀 현장실습	-제4기 집합교육
	▸강의 - 경영관리방법－농촌지역 메니지먼트－식품안전－마케팅 ▸현장실습 - 농업연구기관에 학생을 파견하여, 조사・실습, 각종통계의 이해・정리, 문헌수집・정리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방법 습득	▸강의 - 2년간의 학습을 총괄 - 졸업 후의 경영방법 확립
	▸분임토론학습 - 지역과제종합연구 - 현지조사	▸분임토론학습 - 졸업논문 테마 例 장래 취농계획과 부합시켜 자가경영, 지역, 유통・가공 관계산업의 조사에 근거한 종합분석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구체적인 경영계획, 지역만들기 등

자료 : 김수욱 외(2011), 한국농수산대 장기현장실습 정밀실태 조사연구

3.4.2.2. 농업자대학의 현장실습

농업자대학에서는 1학년 과정에서 4개월간 선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2학년 과정에서는 연구팀 현장실습 등 2원화된 실습체계를 갖추고 있다.

3.4.3. 장기현장실습(1학년 과정)

농업자대학에서는 1학년의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각지의 농업선진경영체에서 장기 농업실습을 진행한다. 이 실습은 농업과 농촌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의 선진농업인의 살아있는 농업경영과 가치관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개월간의 현장실습 후, 실습내용을 '선진경영체 파견 실습보고회'를 통해 발표한다.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농업경영감각을 체득할 수 있으며, 선진적인 경영관리수법을 실천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농업지식이 비교적 풍부한 농가출신 학생은 유통・식품가공・농업기계・종묘회사 등 농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실습에서 배운 지식을 장래 농업경영에 연계시킬 수 있다. 농업경험이 부족한 비농가출신의 학생은 농작업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장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3.4.4. 연구팀 현장실습(2학년 과정)

연구팀 파견현장실습은, 2학년을 대상으로 농업연구기구의 제1선에 있는 연구자들의 지도를 통해 선진적인 농업기술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익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선의 연구자의 지도를 받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법을 키워 향후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농업기술개발의 배경과 도입효과 및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 연구자와의 인맥을 쌓아 재학 중은 물론이고, 졸업 후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자의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4. 주요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주요 농업 선진국들에서는 농업 후계자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의 교육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 실습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습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4.1.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농업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는 중등교육과정(우리나라의 농업계 고등학교[6])

에 해당)을 통해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10대에 직업교육을 강조하여 왔으며, 실습중심교육을 통해 졸업 후 영농취업이나 창업을 도모하고 있다.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의 농업교육과정은 농산업 관련 관리직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도 실습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필수 교과과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럽 국가들과 상이한 농업후계인력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입생을 모집하여, 전문대학 수준의 농업자대학교를 통해 주요 핵심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7개의 농업대학을 통해 지역의 중요한 농업인력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계 대학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졸업 후 농산업 취업이나 창업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제3의 교육기관을 통해 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중장기 현장실습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 구성

한국농수산대와 마찬가지로 농업선진국들에서는 중장기 현장실습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통해 미래 영농을 위한 실천적 기술 습득 및 농업경영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농업교육도 일종의 직업교육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직업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실습교육을 통한 직업세계의 탐색과 진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중요시 한다. 더군다나 농업교육은 창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 및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농장경영에 대한 다양한

6) 우리나라 농과계 고등학교 수는 순수농고 21개, 농업계열 학과 설치학교 50개교이며(2010년), 학생 수는 21,666명이다. 그리고 졸업 후 농업계 취업 및 창업 비율은 매우 미미하여 농고의 교육목표인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한국농업교육협회 내부자료, 2011).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교육에 있어서 장기간의 현장실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실습생들은 미래 창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

4.3. 실습기관과 대한 인증과 능력이 검증된 현장 지도자를 통한 실습진행

사례에서 살펴본 모든 국가들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실습농장과 현장교수에 대한 자격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전문농업경영사나 농업마이스터만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도 엄격한 인증절차를 걸친 농가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 지도자는 교육자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교육목적 달성과 원활한 실습진행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현장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검증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주로 농업마이스터들에 의해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이스터 교육과정 중 실습지도를 위한 교과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실습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직업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세대를 거치면서 실습중심교육을 진행해 옴으로써 실습지도자가 실습생 교육에 대한 많은 지식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4.4. 실습진행전 철저한 사전 준비단계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실습희망자들은 실습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습지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실습기관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실습 실시 전에 실습희망자가 반드시 실습농장을 방문하여 실습지도자를 면담하도록 하고 있으

며, 최종적으로 합의된 경우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습희망자는 이력서 및 지원동기, 향후계획 등에 대해 실습지도자에게 설명을 하고, 실습지도자는 실습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실습지원자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서 실습생들을 선별적으로 받게 된다.

4.5. 실습진행과정의 체계적 관리

실습진행 과정에 있어서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실습지도자는 교육자로서 실습생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학교와 실습농장과는 협약을 체결하고, 실습규정과 협약서의 내용에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도자는 학생들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학교와의 네크워크를 유지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습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매뉴얼화되어 있어 실습생 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농업선진국의 현장실습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농수산대학의 장기현장실습의 효율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 시작 전에 사전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학년 과정 중에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이 실습하게 될 농장에 대해 방문, 탐색하는 등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준비과정을 학점화하여, 실습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 체계적으

로 습득하고, 실습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져야 할 것이다. 실습준비 프로그램은 ① 자신에 대한 탐색, ② 정보탐색 및 농장 방문탐색, ③ 농장 선정 및 실습준비, ④ 워크숍 개최를 통한 교육 및 의견 공유의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실습생과 현장교수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다. 한국농수산대의 경우 실습교수에 대한 소양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실습지도요령과 상황별 지도사례 등을 수록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현장교수용 실습지침서 형태의 매뉴얼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실습교육에서 실습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수록한 매뉴얼의 발간 및 보급은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특히 현장교수에게 제공되는 실습 지도방법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매뉴얼은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내용과 현장실습 전단계, 실습 초기단계, 중간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주요내용과 체크포인트를 강조하여, 실습생 지도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습농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의 실습농장에 대한 편람은 수록내용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공란이 많이 농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김수욱 외, 2011). 농장에 대한 웹페이지는 상세한 농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실습시 제공되는 제반여건이나 실습가능한 교육프로그램 및 농장경영 노하우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교수나 실습생이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습교수와 실습생 혹은 실습수료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실습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교의 실습농장에 대한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

를 통해 현장실습의 중요성에 비해 농장 관리측면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습농장이 교육농장으로서 질적으로 우수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실습교육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실습농장의 평가에 대한 적합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우수한 실습농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실습생을 보내지 않거나 실습농장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학교와 농장 간 이해관계에 따른 현재의 관계설정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선 부적절한 실습농장을 배제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한 기회로만 여기는 경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획일적으로 한 개 농장에서 10~12개월간 진행되는 현장실습 형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전공에 따라서는 현재의 형태가 적합할 수 있으나, 식물재배의 경우 작부체계가 상이하여 농번기와 농한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몇 개월 단위로 농장일이 반복되는 경우, 연중 유사한 농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 따라 적합한 실습모델을 개발하여 실습교육의 형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습체계 모델 개발은 무엇보다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농장의 노동력 제공이라는 요구와도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실습생들이 5개월간의 실습을 마친 후 서로 실습농장을 바꿔서 타 농장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 경우 현장교수 입장에서는 타 농장에서 실습경험이 있는 실습생을 지도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실습생은 각기 다른 농장에서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의 장기현장실습은 재학생들에게 현장에서의 영농경험을 통해 미래 농업CEO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미래 창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장기현장실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선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몇몇 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현장교수, 실습생이 서로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실습내용이 교육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실습생에게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 따라서 2학년에 진행되는 장기현장실습과정에 대해서도 1, 3학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못지않은 관심과 학교의 역할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수욱, 전은경, & 최영창. (2011).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 정밀조사연구*. 한국농수산대학 연구용역 보고서.

김진모. (2006).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 교육 혁신 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8*(3), 75-111.

김진모, 정철영, & 나승일. (2008). *한국농업대학 학과 개편 및 대학 기능강화 방안 수립 연구*. 한국농업대학.

김진모 외. (2010).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정밀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농수산대학.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업통계. [On-line]. Available : http://www.maf.go.kr

농림수산성. (2011). 농업통계. [On-line] Available : http://www.maff.go.jp

농업교육정보시스템. (2011). [On-line]. Available : http://www.agriedu.net

안덕현 외. (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한국농업전문학교.

유병민・김정주・최영창・박혜진, & 김선희. (2010).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7*(1), 45-74.

이영대, & 정명채. (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환・정철영・나승일, & 허영준. (2001).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3*(1), 1-24.

정철영.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인력 양성.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4*(4), 1-24.

정철영・김진모・김호동・서규선, & 강윤규. (2008). *한국농업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개설을 위한 연구*. 한국농업대학.

통계청. (2011). 농업기본통계. [On-line]. Available: http://kosis.nso.go.kr

한국농업교육협회. (2011).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 개선방안*. 협회 내부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Boone, E. J. (1985). *Developing programs in adult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ill, Inc., Englewood Cliffs.

Caffarella, R. S. (2002). *Planning Programs for Adult Learners: A Practical Guide for Educators, Trainers, and Staff Developers(2nd)*. San Francisco: Jossy-Bass.

Duncan, H., & Chris, B. (1990). *Evaluation and Assessing for Learning*. London: Kogan Page.

Gilley, J. W., & Maycunich, A. (2000). *Organizational Learning, Performance, and Change : An Introduction to 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seus Books.

Guba, E. G., & Lincoln, U.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Ministry of Agriculture. (2011). *Agricultura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For a Natural Future.*

Wageningen Agricultural University. (1997). *International Postgraduate Programme.*

논문투고일: 2012. 1. 10
1차수정일: 2012. 3. 5
게재확정일: 2012. 3. 20